

청색 $\text{Ca}(\text{Al}_{0.97}\text{B}_{0.03})_2\text{O}_4 : \text{Eu}^{+2}, \text{Nd}^{+3}$ 형광체의 잔광 특성에 관한 연구

김 대 수 · 이 임 렬

단국대학교 재료공학과

A Study on the Phosphorescent Characteristics of Blue $\text{Ca}(\text{Al}_{0.97}\text{B}_{0.03})_2\text{O}_4 : \text{Eu}^{+2}, \text{Nd}^{+3}$ Phosphor

Daesu Kim and RhimYoul Lee

Dept. of Materials Sci. & Engr., Dankook Univ., Cheonan 330-714

(1998년 10월 21일 받음, 1998년 11월 3일 최종수정본 받음)

초록 $\text{CaAl}_2\text{O}_4 : \text{Eu}$ 청색 형광체에서 모체 조성의 변화 및 공활성제 도입에 따른 잔광 특성을 비교하였다. $\text{CaAl}_2\text{O}_4 : \text{Eu}^{+2}(0.3\%)$ 의 잔광시간이 20초 이내인 반면 공활성제로 Nd^{+3} 을 0.6% 첨가한 $\text{CaAl}_2\text{O}_4 : \text{Eu}^{+2}, \text{Nd}^{+3}$ 형광체의 잔광시간은 4.5시간으로 개선되었다. 또한 모체성분 Al의 일부를 B으로 치환하고 Nd^{+3} 을 공활성제로 사용한 $\text{Ca}(\text{Al}_{0.97}\text{B}_{0.03})_2\text{O}_4 : \text{Eu}^{+2}(0.3\%), \text{Nd}^{+3}(0.6\%)$ 형광체의 초기 잔광 강도는 치환 전 보다 증가하였으며, 잔광시간은 30시간으로 봉소치환 및 공활성제 Nd의 도입으로 잔광 특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다.

Abstract The change of phosphorescent property with chemical modification and co-doping of Nd as an auxiliary activator in $\text{CaAl}_2\text{O}_4 : \text{Eu}$ blue phosphor was investigated. While the persistent time is 20 seconds for $\text{CaAl}_2\text{O}_4 : \text{Eu}$ phosphor, $\text{CaAl}_2\text{O}_4 : \text{Eu}^{+2}, \text{Nd}^{+3}$ phosphor, employing Nd^{+3} ion(0.6%) as an co-activator, maintained its afterglow for 4.5 hours. And also the initial persistent brightness and phosphorescent property were further improved both by substituting Al by B atoms and incorporation of Nd^{+3} ion. It was found that the persistent time was 30 hours for $\text{Ca}(\text{Al}_{0.97}\text{B}_{0.03})_2\text{O}_4 : \text{Eu}^{+2}(0.3\%), \text{Nd}^{+3}(0.6\%)$ phosphor.

1. 서 론

형광체는 자외선 등의 에너지를 받아 가시광선의 빛을 발하는 물질이다. 일반적인 형광체는 외부의 에너지 조사가 중지되면 형광체의 감쇄 시간 (decay time)이 짧아 가시광선의 빛하는 빛도 바로 없어지는 즉 잔광 (afterglow) 시간이 수초 이내로 매우 짧다. 한편 이러한 형광체와는 다르게 수분부터 수십시간 동안의 오랜 잔광 특성을 보이는 형광체를 인광 (phosphorescence) 혹은 잔광형광체 (long decay phosphors) (또는 축광형광체)라 하며 그 산업적 응용도 통상의 형광체와는 다르다. 한 예로, 이러한 잔광 형광체는 야광시계, 안전표지 (safety sign), 내부장식 및 예술그림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.¹⁾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잔광 형광체로는 $\text{ZnS} : \text{Cu}$ (녹색), $\text{ZnCdS} : \text{Cu}$ (황색), $\text{CaSrS} : \text{Bi}$ (청색) 등으로 주로 황화물계의 화합물이다. 그러나 이러한 황화물계는 자외선 (ultra violet) 조사나 습기 등에 의해 분해되어 형광체의 특성이 저하되고 색상 또한 겹게 변하게 되어 실외의 장소에는 그 사용이 부적합하다. 또한 상기의 황화물 형광체의 휘도와 축광 특성의 개선 목적으로 방사선 원소 (^{141}Pm 혹은 ^3H)가 첨가되고 있는 바 처리 과정이나 폐기 처분 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실내에서의 사용에도 많은 제한이 수반되고 있다.²⁾ 따라서 화학적 및 환경학적으로 안정성이 있는 산화물계의 축광 형광체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. 이와 관련 현재 SrAl_2O_4 :

$\text{Eu}^{+2}, \text{Dy}^{+3}$ 녹색 축광 형광체가 개발되어³⁾ 기존의 황화물계의 $\text{ZnS} : \text{Cu}$ 형광체를 대체하고 있으며, 청색의 $\text{CaSrS} : \text{Bi}$ 축광 형광체를 대체할 산화물계 형광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.⁴⁾

$\text{CaAl}_2\text{O}_4 : \text{Eu}$ 청색 형광체는 초기에는 주로 램프 형광체로 이용이 되었으나 근래에는 안정성 등의 이유로 이를 보완하여 축광 형광체에도 적용하고자 하고 있다.⁵⁾ 한편 형광체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활성제 이외에 제2의 공활성제 (auxiliary activator)의 도입으로 광학적 특성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. 한 예로 $\text{ZnS} : \text{Cu}$ 형광체에 Co를 공활성제로 도입함으로서 축광 특성이 개선되고, $\text{SrS} : \text{Eu}^{+2}$ 에 Sm^{+3} 을 첨가함으로서 발광 특성이 개선되며 또한 $\text{LiF} : \text{Mg}$ 에 Cu와 P를 주입함으로서 열 발광 특성이 개선된다고 보고되어 있다.⁶⁾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학적 안정성이 있는 산화물계 청색 형광체인 $\text{CaAl}_2\text{O}_4 : \text{Eu}^{+2}$ 모체성분에서 Al의 일부를 봉소 (B) 원자로 치환시켜 형광체의 초기 잔광휘도를 개선하고자 하였으며, 또한 활성제 Eu^{+2} 이외에 3가의 양이온인 Nd, Dy, Ho, Gd, Er 등의 공활성제를 첨가하여 $\text{CaAl}_2\text{O}_4 : \text{Eu}^{+2}$ 형광체의 잔광 특성을 더욱 개선하여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황화물계인 $\text{CaSrS} : \text{Bi}$ 축광 형광체를 대체할 축광 특성이 우수한 산화물계의 청색 잔광 형광체를 개발하고자 하였다.

2. 실험 방법

형광체의 제조는 순도 99.9% 이상인 CaCO_3 , Al_2O_3 , H_3BO_3 , Eu_2O_3 , Nd_2O_3 , Dy_2O_3 , Ho_2O_3 , Gd_2O_3 의 원료를 사용하였다. 출발 물질 CaCO_3 , Al_2O_3 및 H_3BO_3 을 모체 성분의 화학당량 $\text{Ca}(\text{Al}_{1-x}\text{B}_x)\text{O}_4$ 대로 평량하고 여기에 적당한 양의 활성제 원소인 Eu_2O_3 과 공활성제 (co-activator) 혹은 부활성제 (auxiliary activator)인 Nd_2O_3 , Dy_2O_3 , Ho_2O_3 , Gd_2O_3 를 첨가하여 볼밀로 균일하게 혼합하였다. 이 혼합한 분말을 알루미나 보트에 넣고 1300°C에서 95% N_2 와 5% H_2 의 혼합기체를 사용한 환원성 분위기 하에서 4시간 동안 고상 반응시켜 형광체를 제조하였다. 제조한 형광체의 잔광 특성의 평가를 위하여 우선 형광체를 암실에서 20시간 이상 방치하여 형광체 내부에 혹시 남아 있을 수 있는 모든 축적된 에너지를 방출하도록 하였다. 그후 파장이 365nm인 자외선(UV, ultra violet) 광원으로 형광체를 3분간 계속 조사시켜 형광체를 정상 상태의 여기(steady state excitation)로 만든 후 광원을 제거한 후 암실에서 Luxmeter (Minolta, CS-100)로 그 잔광 강도를 측정하였다. 형광체의 발광스펙트럼은 254nm UV의 광원을 사용한 Optical Scanning Multichannel Analyzer (Photodiodes, OSM A-1)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. 또한 형광체의 결정구조는 XRD (Shimadzu, DX-D1)로 분석하였으며, 형광체 분말의 모양은 SEM (Jeol 5200)으로 관찰하였다.

3. 결과 및 고찰

구조 및 발광 스펙트럼

그림 1은 제조한 CaAl_2O_4 계 형광체의 X선 회절도이며, 분석결과 1300°C의 환원성 분위기(95% N_2 +5% H_2) 하에서 4시간 동안 반응시켜 합성한 시편들은 주로 monocalcium aluminate인 CaAl_2O_4 상이었으며 미량의 $\text{Ca}_{12}\text{Al}_{14}\text{O}_{33}$ 도 일부 보이고 있다. 문현상에 보고된 CaAl_2O_4 합성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CaAl_2O_4 형성시 $\text{Ca}_3\text{Al}_2\text{O}_6$ 과 $\text{Ca}_{12}\text{Al}_{14}\text{O}_{33}$ 상이 중간상으로 존재한다고 하였으나⁷⁾ 본 시편에서는 $\text{Ca}_3\text{Al}_2\text{O}_6$ 의 생성량이 작아 $\text{Ca}_3\text{Al}_2\text{O}_6$ 중간상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. 그림 2는 1300°C에서 4시간 동안 반응시켜 제조한 $\text{Ca}(\text{Al}_{0.97}\text{B}_{0.03})_2\text{O}_4:\text{Eu}^{+2}(0.3\%), \text{Nd}^{+3}(0.6\%)$ 형광체의 SEM 사진으로 형광체 분말은 판상의 모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형광체 분말의 크기나 그 모양은 형광체 모체 조성의 변화나 공활성제 원소의 도입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그림 2와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다.

그림 3은 1300°C에서 4시간 동안 반응시켜 합성한 형광체의 254nm의 자외선 조사에 따른 발광 스펙트럼으로 파장이 450nm를 최대 발광 파장으로 하는 400-520nm의 폭넓은 청색의 가시 광선을 발하는 청색 형광체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잔광도 청색인 축광 형광체이다. 그림 3의 청색 발광 스펙트럼은 활성제 Eu 원자가 +2가의 Eu^{+2} 이온으로 Ca^{2+} 자리에 치환되어 존재하기 때문이며 발광원인 활성제 Eu^{+2} 이온의 5d-4f 전이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또한 폭넓은 발광 파장의 범위는 모체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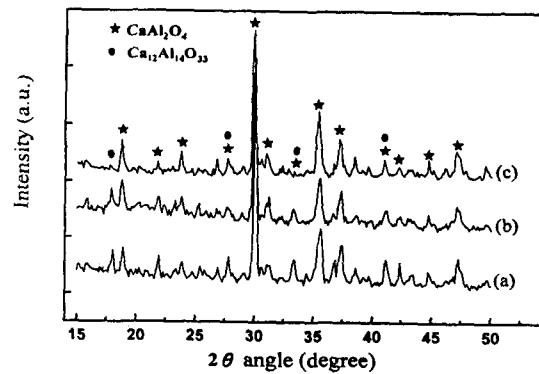


Fig. 1. XRD patterns for (a) $\text{CaAl}_2\text{O}_4:\text{Eu}^{+2}$, (b) $\text{CaAl}_2\text{O}_4:\text{Eu}^{+2}, \text{Nd}^{+3}$ and (c) $\text{Ca}(\text{Al}_{0.97}\text{B}_{0.03})_2\text{O}_4:\text{Eu}^{+2}, \text{Nd}^{+3}$ phosphors.



Fig. 2. The SEM picture of $\text{Ca}(\text{Al}_{0.97}\text{B}_{0.03})_2\text{O}_4:\text{Eu}^{+2}(0.3\%), \text{Nd}^{+3}(0.6\%)$ phosphor synthesized at 1300°C for 4 hours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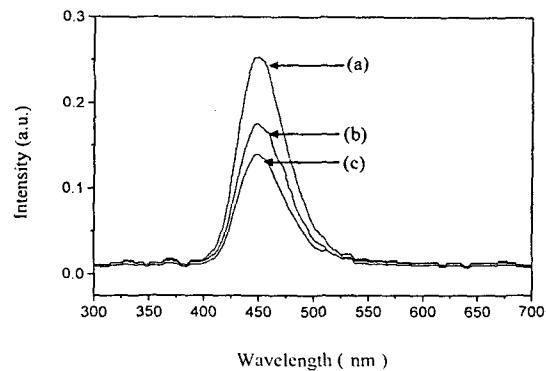


Fig. 3. The emission spectra under 254 nm irradiation. (a) $\text{CaAl}_2\text{O}_4:\text{Eu}(0.3\%)$ (b) $\text{Ca}(\text{Al}_{0.97}\text{B}_{0.03})_2\text{O}_4:\text{Eu}(0.3\%)$ (c) $\text{Ca}(\text{Al}_{0.97}\text{B}_{0.03})_2\text{O}_4:\text{Eu}(0.3\%), \text{Nd}(0.6\%)$

활성제와의 상호 작용에 기인된다고 알려지고 있다.⁸⁾ 또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성의 변화나 공활성제 도입으로 형광체의 발광 강도는 상이하나, 최대 강도를 보이는 주파장의 위치에는 변화가 없는 바 이는 붕소의 치환이나 공활성제인 Nd의 도입으로도 발광원인 Eu^{+2} 이온의 5d 전자에 미치는 결정장(crystal field)이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.³⁾ 그러나 발광강도의 크기는 동일한 Eu 활성제 농도(0.3%)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이하게 관찰되고 있다. 즉 $\text{Ca}(\text{Al}_{0.97}\text{B}_{0.03})_2\text{O}_4:\text{Eu}$ 형광체의 발광 강도는 $\text{CaAl}_2\text{O}_4:\text{Eu}$ 보다 작으며, 붕소의 치환과 공

활성제로 Nd를 동시에 사용한 $\text{Ca}(\text{Al}_{0.97}\text{B}_{0.03})_2\text{O}_4:\text{Eu}, \text{Nd}$ 형광체는 $\text{Ca}(\text{Al}_{0.97}\text{B}_{0.03})_2\text{O}_4:\text{Eu}$ 보다도 낮은 발광 휘도를 보이고 있다. 그림 3의 발광 스펙트럼은 단시간의(10초) 254nm의 자외선 노출 하에서 측정한 것임을 감안 할 때 봉소의 치환이나 공활성제 Nd의 도입시 이들이 단시간의에너지 조사에 따른 발광을 하는 전형적인 형광체의 발광 특성에는 해로운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. 보통의 형광체가 여기 광원이 있을 때만 발광하는, 즉 비정상 상태의 여기(non-steady state excitation)에 따른 발광현상이다. 그 반면 잔광 혹은 축광 형광체는 오랫동안 외부 에너지에 노출되어 형광체가 정상 상태로 여기(steady state excitation) 된 후 그 축적된 에너지에 의하여 광원을 제거한 후에도 오랫동안 잔광을 보이는 형광체로 서로 그 기구 및 용도가 상이하다. 전형적인 형광체 용도로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봉소의 치환이나 공활성제 Nd의 도입으로 형광 특성을 개선할 수는 없으나 동 형광체의 잔광 특성은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향상시킬 수 있어 이를 잔광 형광체로 이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.

잔광 특성

CaAl_2O_4 형광체의 모체 조성에 따른 잔광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구성성분인 Al 원자의 일부를 봉소(Boron) 원자로 치환한 $\text{Ca}(\text{Al}_{1-x}\text{B}_x)_2\text{O}_4$ 형광체를 제조하였다. 그간 문헌에 보고된 형광체 연구에 의하면 회토류 원소를 활성제로 한 alkaline-earth aluminate 형광체 합성 시 봉산(H_3BO_3)과 같은 봉소를 함유한 물질을 용제(flux)로 사용하면 형광체의 특성이 개선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봉산(H_3BO_3)을 형광체 합성의 봉소(B)를 제공하는 원료 물질로 사용하였다. 이와 같이 봉산을 형광체 합성의 원료 물질로 사용하면 합성시 봉산은 용제의 역할과 형광체 모체에 치환 도입되는 이중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.⁹⁾ 결정 구조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봉소 치환으로도 monocalcium aluminate인 CaAl_2O_4 상이 주로 형성되었다. 그림 4는 $\text{Ca}(\text{Al}_{1-x}\text{B}_x)_2\text{O}_4:\text{Eu}, \text{Nd}$ 형광체를 파장이 365nm인 자외선 광원으로 3분간 조사하여 형광체를 정상 상태의 여기(steady state excitation)로 유지한 후 광원을 제거한 후 암실에서 측정한 봉소 치환량에 따른 초기 잔광강도의 변화이다. 봉소가 3% 치환된 $\text{Ca}(\text{Al}_{0.97}\text{B}_{0.03})_2\text{O}_4:\text{Eu}, \text{Nd}$ 형광체의 초기 잔광 강도는 치환 전인 CaAl_2O_4 형광체에 비하여 초기 잔광 휘도는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3% 이상의 치환량에서는 서서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. CaAl_2O_4 형광체에서 봉소의 치환으로 초기 잔광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바, 이는 알루미네이트 구조에서 봉소의 치환으로 CaAl_2O_4 결정성이 증가되며 발광원과 형광체에 형성된 trapping site가 안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.⁹⁾ 봉소 치환량 3%에서 최대의 초기 잔광강도를 보이고 있는 바 향후의 잔광 형광체 제조는 봉소가 3% 치환된 $\text{Ca}(\text{Al}_{0.97}\text{B}_{0.03})_2\text{O}_4$ 형광체 모체조성을 사용하여 잔광 특성을 분석하였다.

그림 5는 암실에서 365nm UV로 3분간 조사하여 충분히 형광체를 여기시킨 후 암 상태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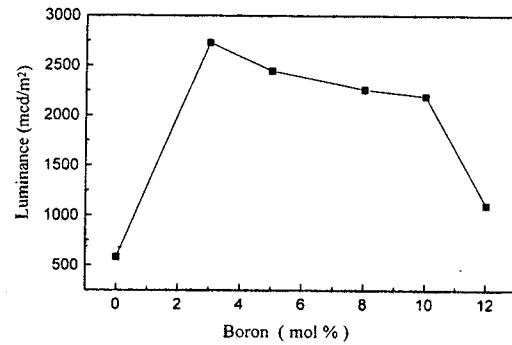


Fig. 4. The change of initial persistent brightness with boron content in $\text{Ca}(\text{Al}_{1-x}\text{B}_x)_2\text{O}_4:\text{Eu}^{+2}, \text{Nd}^{+3}$ phosphor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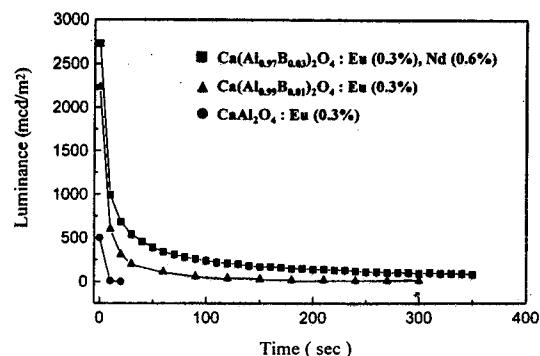


Fig. 5. Decay curves of the after-glow for the various phosphors.

광체의 잔광 휘도 변화를 측정한 잔광 특성이다. 보는 바와 같이 형광체의 잔광 강도는 시간 경과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봉소가 치환된 $\text{Ca}(\text{Al}_{0.99}\text{B}_{0.01})_2\text{O}_4:\text{Eu}$ 및 $\text{Ca}(\text{Al}_{0.97}\text{B}_{0.03})_2\text{O}_4:\text{Eu}, \text{Nd}$ 형광체의 초기 잔광강도는 $\text{CaAl}_2\text{O}_4:\text{Eu}^{+2}$ 형광체 보다 크며, $\text{Ca}(\text{Al}_{0.97}\text{B}_{0.03})_2\text{O}_4:\text{Eu}, \text{Nd}$ 형광체의 잔광 특성은 $\text{Ca}(\text{Al}_{0.99}\text{B}_{0.01})_2\text{O}_4:\text{Eu}$ 이나 $\text{CaAl}_2\text{O}_4:\text{Eu}$ 보다도 우수함을 알 수 있다. 잔광강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음의 ①식의 지수 함수적인 관계식이나 혹은 ②식의 누승법칙(power law) 식에 따라 잔광강도가 감소되며 이로부터 형광체의 잔광 특성을 알 수 있다.⁹⁾

$$I_t = I_0 e^{-at} \quad \text{①}$$

$$I_t = I_0 t^{-n} \quad \text{②}$$

여기서 I_t 는 t 시간 경과후의 잔광 강도이며, I_0 는 $t=0$ 즉 형광체를 여기시키는 광원을 제거한 직후의 초기 잔광 강도이다. a 나 n 은 각 유형의 감쇄시간 상수(decay time constant)이다. 형광체는 감쇄시간 상수 n 값이 적을수록 긴 감쇄특성 즉 오랫동안 축광 특성을 보유하게 된다. 본 연구에서 수행한 형광체의 잔광특성은 ①식 보다는 ②식을 따라 변화하였다.

제2의 공활성제 Nd^{3+} 영향

$\text{CaAl}_2\text{O}_4:\text{Eu}^{+2}$ (0.3%) 형광체는 광원을 제거한 후 20초 이내에 청색의 잔광을 눈으로 감지할 수 없는 즉, 감쇄시간이 너무 빠른 축광 형광체가 아니었다. 그러나, 활성제 Eu^{+2}

이외에 공활성제(co-activator) 혹은 부활성제(auxiliary activator)로 Nd³⁺ 원소를 0.6 mole% 첨가한 CaAl₂O₄:Eu(0.3%), Nd(0.6%) 형광체는 Nd 원소를 첨가하지 않은 CaAl₂O₄:Eu(0.3%) 과 마찬가지로 파장이 450nm를 최대 발광 파장으로 하는 400~520nm의 폭 넓은 청색의 가시 광선을 발하는 청색 형광체이었으며 (그림 3 참조) 이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CaAl₂O₄:Eu, Nd 및 CaAl₂O₄:Eu 형광체에서 공히 발광원으로 동일한 Eu²⁺ 원자를 활성제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. 그림 6에 몇 가지 형광체의 잔광특성을 표시하였다. 본 그림에서는 청색의 축광 형광체로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CaSrS:Bi 형광체의 잔광특성을 포함시켜⁴⁾ 잔광특성을 상호 비교하였다. 활성제 이외에 첨가되는 공활성제 원소는 trapping site의 역할을 하게 되어 감쇄시간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지고 있다. 즉 SrAl₂O₄:Eu²⁺, Dy³⁺의 녹색 형광체에서 공활성제로 첨가된 Dy³⁺ 원자는 hole trapping 역할로 잔광 특성이 개선된다고 설명되고 있다.⁵⁾ 본 실험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Nd³⁺ 이온을 공활성제로 사용한 CaAl₂O₄:Eu²⁺,Nd³⁺ 형광체의 잔광 특성은 CaAl₂O₄:Eu²⁺ 형광체 보다 우수하였는바, 이는 SrAl₂O₄:Eu²⁺,Dy³⁺에서와 같이 Eu²⁺ 여기에 의하여 형성되는 hole이 공활성제 Nd³⁺ 원소에 포획(trapping) 된 후 포획된 hole이 서서히 방출되면서 Eu²⁺ 이온의 전자와의 재결합으로 발생하는 발광현상으로 인하여 동 형광체의 잔광 특성이 개선된 것으로 해석된다.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잔광특성은 상기 ②식의 누승법칙에 따라 변하고 있으며 직선의 기울기는 각 형광체의 감쇄시간 상수 n에 해당한다. 최소 자승법으로 구한 감쇄시간 상수는 Ca(Al_{0.97}B_{0.03})₂O₄:Eu²⁺,Nd³⁺ 형광체가 0.92, CaAl₂O₄:Eu²⁺,Nd³⁺은 0.95로 유사하였으며 Al 원자의 일부를 봉소로 0.03mole 치환한 Ca(Al_{0.97}B_{0.03})₂O₄:Eu²⁺,Nd³⁺ 형광체의 초기 및 잔광 강도의 크기는 치환되지 않은 CaAl₂O₄:Eu²⁺,Nd³⁺보다 크다.

본 실험에서 잔광측정에 사용된 Luxmeter의 sensitivity가 충분치 못하여 정확한 잔광 시간을 측정하지는 못하였지만 육안으로 관찰한 바에 의하면 Ca(Al_{0.97}B_{0.03})₂O₄:Eu²⁺,Nd³⁺ 형광체는 30시간 후에도 그 잔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축광 형광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. 사람의 눈으로 광을 검지 할 수 있는 한계가 0.32 mcd/m²인 점을 고려하여⁶⁾ 그림 6의 직선들을 0.32 mcd/m²의 잔광 강도까지 연장하여 그 잔광 시간을 예측할 수 있다. 이렇게 하여 구한 Ca(Al_{0.97}B_{0.03})₂O₄:Eu²⁺(0.3%),Nd³⁺(0.6%) 형광체의 잔광시간은 33시간으로서 육안으로 관찰된 30시간과 유사하다. CaAl₂O₄:Eu²⁺(0.3%) 형광체의 잔광시간이 20초 이내인 반면 공활성제로 Nd³⁺을 0.6% 첨가한 CaAl₂O₄:Eu²⁺(0.3%),Nd³⁺(0.6%) 형광체의 감쇄시간 상수는 0.95, 잔광시간은 4.5시간으로 공활성제 Nd³⁺ 이온의 도입으로 잔광 특성이 개선되었으며, 봉소치환과 공활성제 Nd³⁺를 동시에 사용한 Ca(Al_{0.97}B_{0.03})₂O₄:Eu²⁺(0.3%),Nd³⁺(0.6%) 형광체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잔광 시간이 30시간 정도로 그 축광 특성이 더욱 개선됨을 알 수 있다. 또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Ca(Al_{0.97}B_{0.03})₂O₄:Eu²⁺,Nd³⁺ 형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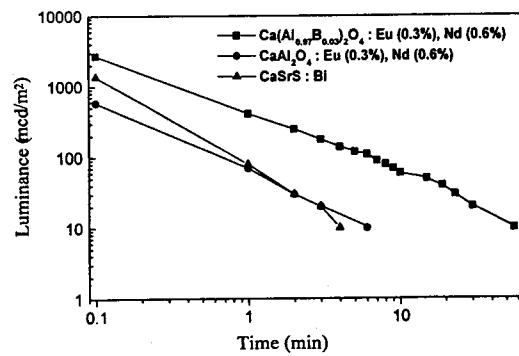


Fig. 6. Phosphorescence characteristics of the various phosphors. CaSrS:Bi phosphor is included for comparison.⁴⁾

체의 초기 잔광 강도는 기존에 청색의 축광 형광체로 사용되고 있는 CaSrS:Bi보다 크다. 더욱이 CaSrS:Bi의 잔광시간이 1.5시간인 반면 Ca(Al_{0.97}B_{0.03})₂O₄:Eu²⁺,Nd³⁺ 형광체는 30시간 정도의 장시간의 잔광특성을 보유하고 있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산화물계인 Ca(Al_{0.97}B_{0.03})₂O₄:Eu²⁺,Nd³⁺ 형광체는 화학적 안정성이 결여된 기존의 황화물계 형광체 CaSrS:Bi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
제3의 공활성제 영향

Ca(Al_{0.97}B_{0.03})₂O₄:Eu²⁺,Nd³⁺ 형광체의 잔광 특성 개선의 목적으로 동 형광체 조성에 제3의 공활성제 원소로 희토류 원소인 Dy³⁺(Dysprosium), Ho³⁺(Holmium), Er³⁺(Erbium) 및 Gd³⁺(Gadolinium) 이온의 양을 0.1mole% ~ 1.0mole%까지 추가로 첨가하여 그 잔광특성을 측정하였다. 그림 7은 Ca(Al_{0.97}B_{0.03})₂O₄:Eu²⁺,Nd³⁺ 형광체에 제3의 공활성제로 각각 0.3% Dy³⁺, 0.5% Ho³⁺, 0.5% Er³⁺ 및 0.7% Gd³⁺을 첨가한 시편의 잔광 특성이며, 표 1에 이들 형광체들과 CaAl₂O₄:Eu²⁺,Nd³⁺ 잔광 형광체의 감쇄시간 상수, 초기 휘도, 1분 후, 10분 후 및 40분 후의 잔광강도를 표시하였다. 보는 바와 같이 제3의 공활성제 원소첨가로 축광 특성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형광체의 잔광 특성은 나빠지고 있다. 이는 CaAl₂O₄:Eu²⁺(0.5%), Nd³⁺(0.5%) 형광체에서는 0.5%의 Dy³⁺, Ho³⁺, Er³⁺ 및 Gd³⁺ 등의 제3의 공활성제의 첨가로 잔광 특성이 개선된다는 보고와는²⁾ 상이하다. 현재 이에 대한 차이를 정확히 해석은 할 수 없으나 형광체의 발광 특성이 모체조성(CaAl₂O₄, Ca(Al_{0.97}B_{0.03})₂O₄)에 따라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한편 Dy, Ho 및 Er 첨가 시 초기, 1분 및 10분 후의 잔광강도는 첨가전 보다 오히려 감소하였으나, Gd을 0.7% 첨가한 Ca(Al_{0.97}B_{0.03})₂O₄:Eu²⁺,Nd³⁺,Gd³⁺ 형광체의 초기 잔광 휘도는 Ca(Al_{0.97}B_{0.03})₂O₄:Eu²⁺,Nd³⁺에 비하여 증가하였다. YBO₃:Eu³⁺ 형광체에서 Y의 일부를 Gd 원자로 치환시킨 Y_{1-x}Gd_xBO₃:Eu³⁺의 형광체의 휘도 증가는 Gd³⁺ 원자의 energy transfer 현상으로 알려지고 있다.¹⁰⁾ 따라서 본 연구에서 Ca(Al_{0.97}B_{0.03})₂O₄:Eu²⁺,Nd³⁺에 Gd³⁺ 원자를 첨가함에 따라 초기의 잔광강도가 증가되고 있는 것은, 모체에 흡수된 에너지가 Gd³⁺ 원자의 energy

Table 1. The phosphorescence property of Ca-aluminate phosphors.

형광체	감쇄시간상수	초기 휘도 (mcd/m ²)	1분 후 휘도 (mcd/m ²)	10분 후 휘도 (mcd/m ²)	40분 후 휘도 (mcd/m ²)
$\text{CaAl}_2\text{O}_4:\text{Eu}$ (0.3%)	-	500	-	-	-
CaAl_2O_4 : $\text{Eu}(0.3\%), \text{Nd}(0.6\%)$	0.95	580	70	-	-
$\text{Ca}(\text{Al}_{0.97}\text{B}_{0.03})_2\text{O}_4$: $\text{Eu}(0.3\%), \text{Nd}(0.6\%)$	0.92	2730	410	60	10
$\text{Ca}(\text{Al}_{0.97}\text{B}_{0.03})_2\text{O}_4$: $\text{Eu}, \text{Nd}, \text{Dy}(0.6\%)$	1.03	2380	230	20	-
$\text{Ca}(\text{Al}_{0.97}\text{B}_{0.03})_2\text{O}_4$: $\text{Eu}, \text{Nd}, \text{Er}(0.5\%)$	1.23	1810	170	10	-
$\text{Ca}(\text{Al}_{0.97}\text{B}_{0.03})_2\text{O}_4$: $\text{Eu}, \text{Nd}, \text{Gd}(0.7\%)$	1.03	2890	190	10	-
$\text{Ca}(\text{Al}_{0.97}\text{B}_{0.03})_2\text{O}_4$: $\text{Eu}, \text{Nd}, \text{Ho}(0.5\%)$	0.93	2550	280	50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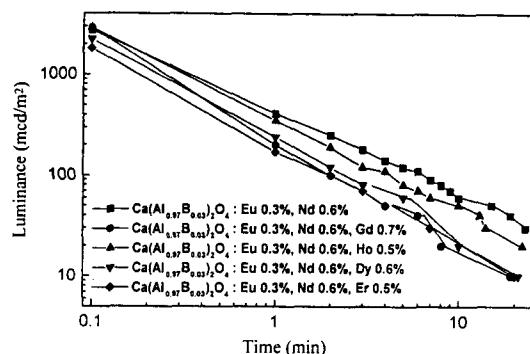


Fig. 7. The after-glow characteristics of phosphorescence phosphors employing different third co-activators.

transfer 과정으로 발광원인 Eu 원자에 추가의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. 그러나 Gd을 첨가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잔광 특성은 $\text{Ca}(\text{Al}_{0.97}\text{B}_{0.03})_2\text{O}_4:\text{Eu}^{+2}, \text{Nd}^{+3}$ 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다.

4. 결 론

고장 반응법으로 $\text{CaAl}_2\text{O}_4:\text{Eu}^{+2}$ 계의 형광체를 제조하였으며 모체 조성의 변환 및 공활성제 도입에 따른 잔광 특성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. 95% N_2 와 5% H_2 의 환원성 분위기 하에서 4시간 반응시켜 합성한 형광체의 구조는 주로 CaAl_2O_4 이었으며 미량의 $\text{Ca}_{1-x}\text{Al}_{1-x}\text{O}_{3x}$ 도 일부 보이고 있다. Eu^{+2} 를 활성제로 한 CaAl_2O_4 형광체는 주파장이 450nm에서 발광을 하는 청색 형광체이었으며, 모체성분 Al의 일부를 B으로 치환한 $\text{Ca}(\text{Al}_{1-x}\text{B}_x)_2\text{O}_4$ 형광체의 초기 잔광 강도는 치환전보다 증가하였으며 $x = 0.03\text{mole}$ 에서 최대의 청색 잔광을 보였다. $\text{CaAl}_2\text{O}_4:\text{Eu}^{+2}$ (0.3%)의 잔광시간이 20초 이내인 반면 공활성제로 Nd^{+3} 을 0.6% 첨가한 $\text{CaAl}_2\text{O}_4:\text{Eu}^{+2}$ (0.3%), Nd^{+3} (0.6%) 형광체의 감쇄시간 상수는 0.95, 잔광시간은 4.5시간으로 공활성제 Nd^{+3} 이온의 도입으로 잔광 특성이 개선되었다. 또한 붕소의 치환 및 공활성제 Nd를 동시에 사용한 $\text{Ca}(\text{Al}_{0.97}\text{B}_{0.03})_2\text{O}_4:\text{Eu}^{+2}, \text{Nd}^{+3}$ 형광체는 감쇄시간 상수 0.92,

잔광시간 30시간으로 청색 형광체의 잔광 특성을 현저히 향상할 수 있었다. 그러나 $\text{Ca}(\text{Al}_{0.97}\text{B}_{0.03})_2\text{O}_4:\text{Eu}^{+2}$ (0.3%), Nd^{+3} (0.6%) 형광체에 제3의 공활성제로 Dy, Ho, Er 및 Gd 등을 미량 첨가하였을 시 추가의 잔광 특성의 개선은 없었다.

감사의 글

이 연구는 1997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연구년제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으며 이에 감사 드립니다.

참 고 문 헌

- Y. Murazaki, K. Arai, K. Ichisnomiya, H. Tamaki and T. Oish, Proceeding of the 4th International Display Workshops, Nagoya, Japan (1997) 705
- Y. Murayama, N. Takeuchi, Y. Aoki and T. Matsuzawa, U.S. patent 5,424,006 (1995)
- T. Katsumata, T. Nabae, K. Sasajima, S. Komuro and T. Morikawa, J. Electrochem. Soc., **144**(9) (1997) L243
- T. Matsuzawa, Proceeding of the 4th International Display Workshops, Nagoya, Japan (1997) 85
- H. Yamamoto and T. Matsuzawa, J. Luminescence **72-74** (1997) 287
- T. Matsuzawa, Y. Aoki, N. Takeuchi and Y. Murayama, J. Electrochem. Soc., **143**(8) (1996) 2670
- B. M. Mohamed and J. H. Sharp, J. Mater. Chem., **7**(8) (1997) 1595
- F. C. Palolla, A. K. Levine and M. R. Tomcus, J. Electrochem. Soc., **115**(6) (1968) 642
- M. R. Royce, H. Tamaki and Y. Murazaki, U. S. patent 5,376,303 (1994)
- R. C. Ropp, J. Electrochem. Soc., **112** (1965) 181